

학·안·대 정당성 확보, 학생회 무력화 의도

대학교육협의회의 전대협과 간담회 제안에 대해

지난 18일 63빌딩에서 전대협이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갖기로 한 간담회가 전대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기되었다. 그러나 대교협 쪽에서는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신변 보장과 참가 학생들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전대협에서는 이후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학원내에서 11월말경에 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기하였다.

과연 왜 그들은 전대협과의 간담회를 제안했을까.

첫째, 학원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모의제였다. 대학 발전연구위원회가 활동을 한지 3개월이 된 현 시점에서 전체의 의견 수렴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학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전대협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둘째, 학생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저들은 전대협이 더이상 학우 대중들 속에서 견디어 내기 힘들게 되자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하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과 학우대중과 학생회와의 관계를 분리시켜내려는 조작극이다.

셋째, 이념의 맞대결과 정치적 맞대결이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발언처럼 이제는 그들 스스로 금기시했던 부분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한번 해보자는 양태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학원 침탈의 방도로서 제기되고 있는 학원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본질을 폭로하고 학원의 문제는 구성원 스스로가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입장에

서 계속적으로 학안대 분쇄 투쟁들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학생회는 학우대중들에 의해서 건설된 대중적인 조직이다. 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다.

셋째, 각학과, 단대에서는 교수·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자. 수업시간이나 교수님과의 만남의 장이 있다면 스타트업이 학안대의 본질에 대하여 풀어 나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자.

정정식
(월문·4)

교수동정

연점속교수 도미

▲연점속(사범대·영교과) 교수=오는 30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세미나참석 및 자료수집차 미국 방문 ▲이재현(의대·의학과) 교수=오는 11월4일부터 10일까지 국제회의참석차 일본방문 ▲김충실(체대·무용과) 교수=오는 11월6일부터 10일까지 초청공연차 일본방문 ▲홍성화(의대·의학과) 교수=오는 11월25일부터 30일까지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차 대만방문.

동문모임

경동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신홍교·기전여교=오는 29일 늦은 5시 마니종합

분식 ▲광덕·대광교=오는 28일 늦은 6시 장소 미정 ▲장흥 향우회=오는 30일 늦은 5시 불새다방 【수원캠퍼스】▲영동포교·영동포여교=오는 29일 외대 앞 ▲경동고=오는 30일 2호관 돌번취향

습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이주련(사학·89) ▲김정희(영문·91) ▲박현정(화학·88) ▲연경아(수학·87) ▲이향복(영문·82) ▲김화정(생물·88) ▲김태규(사학·88) ▲정혜선(화학·87) ▲신성희(수학·85) ▲정재학(화학·88) ▲전운식(법학·87) ▲김락규(경제·91) ▲안현식(경영·90) ▲김충환(경영·87) ▲이동훈(경영·85) ▲김경희(미교·91) ▲조정민(영교·87) ▲손동현(영교·91)

▲방남철(의예·86) ▲이정희(의예·87) ▲김경진(의예·86) ▲하태현(의학·87) ▲조용호(한의예·91) ▲김정진(한의예·91) ▲서효석(치의예·86) ▲한영희(치의예·86) ▲오현미(치의예·86) ▲한영보(치의학·87) ▲김정태(약

·90) ▲조병희(물리·91) ▲배지은(환경·91) ▲김기현(건축공·91) ▲이창준(산업공·84) ▲한승희(체육·89) ▲김기성(체육·90) ▲김동철(태권도·90)

분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이숙임=갈색가죽지갑, 학내에서 ▲김정수(경제·2)=진한갈색지갑, 학내에서 【수원캠퍼스】▲박세진(물리·2)=sony가시계, 스물버섯상자에서 ▲박환수(무예·3)=갈색지갑, 강남스퀘어상자에서

동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수열(생물·3)



학·85) ▲전상규(약학·88) ▲이운정(생약·88) 【수원캠퍼스】▲학생증=▲최익현(서반어·91) ▲유동선(무예·90)

국방비 12.7%인상...복지예산 축소

세계조류, 한반도 정세 역행하는 내년 정부예산

최근들어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와 미국의 일방적 핵감축 선언 등 세계적으로 군축, 평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방비를 삭감하고 국민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을 펴고있다. 그리고 남·북한 UN통시가입 이후 한반도에서도 휴전협정이 평화 협정으로의 대체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26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방비 예산이 1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내년 예산안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사법부 경찰비가 18.2%가 증가한 반면 민중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복지 예산은 8.6%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복지 예산중 당초 예산안에 있었던 사회복지 전문 요원 총원 예산과 사회 복지관 건립 예산이 전면 백지화되고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의료보험 국고 부담분이 31%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 정부가 복지 예산을 감축하면서 내건 가장 큰 명분은 경제 위기를 맞아 경직성 경비를 줄인다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경제의 대외의존성과 독점체제의 일방적 인플레이션정책 및 부동산 투기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의 8%밖에 안되며 민중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 예산을 경직성 경비로 규정하며 감축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말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경직성 예산을 감축시키려고 했다면 당연히 세계적 조류와 한반도 정세에 맞게 국방비를 감축시켰어야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 정권이 민중들의 복지 향상에는 관심이 없으며 정부에서 얘기하는 복지국가 건설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민중 복지의 실현은 더이상 현정권이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4천만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모두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학수
(신방·2)

나성민
(불문·1)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제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독주보는 성실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처: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닥터 노만 배순'을 읽고 반공이 만든 편협된 사고방식 극복 계기

한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로 "닥터 노만 배순"이라는 책을 받았다. 노만 배순? 내게는 전혀 생소한 이름이었다. 닥터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로 봉사 활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려나 하고 별다른 느낌이 책장을 열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결핵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지만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 흉부외과 의사의 권위자가 된 그는 내란이 한창이던 스페인으로 달려가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한다. 파시스트들에 대하여 악연 고투를 벌이고 있던 노동자, 애국 시민들에 대한 캐나다 및 미국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기위해 캐나다로 돌아와 순회 강연을 하던 중 일본 본군의 침략으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 인민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배순은 의로 물자를 갖고 중국으로 달려간다. 제대된 의료사실 한 곳 있는 중국 병사들(팔로군)에게 배순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존경심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러나 배순은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다하여 수행한 파시즘과 반동에 대한 투쟁속에서 패혈증이라는 병으로 사망했다.

라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사회 풍토속에 우리는 얼마나 편협된 교육을 받아왔는가!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될 수 있었던 것도 탈 냉전시대라는 시대조류의 반영이었지(…) 이제 는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편협된 사고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아시아, 국가, 세계를 바라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손세주
(정외·1)

같은 민족·핏줄에게 총을 겨누어서야 유고병사의 '장미꽃'이 주는 교훈

하나의 국가라는 명칭을 달고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이 모여 살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 중 제일 큰 문제는 그 민족 중에 소외되는 민족이 생긴다는 것이다.

세계의 움직임속에 독립하려는 민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지지하러는 세력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한 예가 유고의 내전이다.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사상자를 내며 열전을 하는 것이다. 현재 유고가 전쟁을 호지하지 종결도 못되고 그렇다고 계속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우선 병력이 모자라고, 병력에 항거하는 군인도 있기 때문이다 한다. 그러나 통치·지휘권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시민"의 저항이라는 것이다.

1991년 8월 유고의 여성들이 반전의 기치를 들고 일어섰다.

"지금까지 한술 밥 먹던 유고인들끼리 총질하는 것도 안되지만, 이런 의미없는 자기 아욕을 위한 전쟁에 가족을 희생시킬 수 없다. 우리의 남편과 아들들은 외국의 민족주의자, 장성들 품의 재물이 될 수 없다!"며 지휘본부로 향하려 온 유고슬라비아의 여성들에게 통치하는 장성들은 총부리를 들어대고 명령했다고 한다.

여성 대모대가 사령부에 도착해 목격한 것은 실로 놀라웠다. 질서정연히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병사의 손에는 장미가 한 송이씩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총대신 장미를 들고있던 병사들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가!

또한 소련의 대변인에 거스른 쿠데타에서도 "자기 민족에게 총을 쏜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역사의 섭리가 증명되고 있다.

소련 탱크를 막는 사람들이 비키지 않으면 발포를 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소련 시민에게 발포를 거부한 소련병사들...

그들이 세계여사를 바꾸고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 코리야, 총을 겨누는 서로 몇십년이 흐르지 않았는가!

언어와 사상 뿐 아니라 점점 더 이질감이 더해져만 가고 있을 때에, 이곳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람들의 과소비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 하며 허만 차고 있다...

서로 힘을 모아, 자기 자신을 위하기 보다는, 내 고향, 우리 농촌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자.

인류 파멸의 예방약 '忍'

며칠전 우린 한 농부의 몸부림을 보았다. 그후 얼마 안되어 또다시 젊은 해적 근로자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행동을 접하게 되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을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겠는가?

달리곤 한다. 처음에는 소수의 도시인이 비정상화되었고, 얼마 안가서

수 있다.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점차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지구의 파괴를 막아야 하며, 원래의 인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장, 즉 리크레이션(re-creation)의 장을 만들어 몸과 마음을 원래의 인간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처방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당장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결과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이런 환경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각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 참을 '忍'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마음 속 깊이 소중하게 '忍'자를 새기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극단적 상황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을 받고 유치원도 다니고

똑 같은 교과서로 틀에 박힌 골라잡기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으므로, 각자의 능력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남들보다 앞서가는 젊은이가 있다면, 이는 곧 '忍'자를 누가 더 많이 새겼는가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중간시험때도, 취업준비때도 '忍'자의 교제에 있어서도 현대 도시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10월주제 '인 내'



서주환
(산업대 교수·조경)

인간의 노력에 의해 쾌적한 환경의 장, 즉 레크레이션의 장을 만들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 농촌·인이 비정상으로 여겨졌으며, 이제는 도시, 농촌 구분없이 모든 인간들을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으로 몰아 넣어 모두를 비정상의 정상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에 도시총각, 농촌총각 할 것없이 몇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그런 해외로 아내를 데리고 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왜곡된 도시환경의 팽창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다. 그래서 비싼 돈 버리면서 '헬스클럽'에 다닌다거나, 대낮에 달을 쬔다는 광인모양 목격 없이 멍청하게 '조깅'이라는 이름하에 아스팔트의 공해속을

꿈이있는도전의세계-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무의 현장입니다.